

삼도부(三都賦) 신역(新譯)

Ode to the Three Capitals
: A New Translation

이윤석*

- 차례
1. 신역(新譯)의 경위
 2.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

사가 담당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2권은 1969년 홍찬유(洪贊裕, 1915~2005) 선생이 맡았다. 두 번역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분 중 한 분의 번역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두 분 모두 한문의 대가이므로, 한국고전종합DB에 들어 있는 두 종의 번역은 「삼도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분이 번역한 지 이미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므로, 시대에 맞게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옛날 번역에 주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번역하면서 조금 주석을 더 붙였고, 또 필자 나름의 해석을 해보기도 했다.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활자로 옮긴 것도 있고, 또 원본도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번역과 주석만을 신는다.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삼도부」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문을 면밀하게 비교해보았다. 그러나 최초의 판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소개하지 않는다. 다만 몇 군데 글자가 다른 것은 각 주에서 밝혔다. 기존의 번역을 약간 풀어쓴 정도이지만, 「삼도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혹시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다.

1. 신역(新譯)의 경위

최자(崔滋, 1188~1260)의 「삼도부(三都賦)」는 <동문선(東文選)> 제2권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세 명의 등장인물인 변생(辨生), 담수(談叟), 정의대부(正議大夫)가 각각 서도(西都)와 북경(北京) 그리고 강도(江都)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다. 서도(평양)와 북경(개성)에서 온 두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강도(강화도)에 있는 사람은 벼슬하고 있는 관리이다. 세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를 통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시기의 고려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다. 최근 「삼도부」에 나오는 동명왕 관련 기록을 보다가, 「삼도부」가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두 군데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책은 이미 오래전에 완역이 나왔고, 현재 원문과 함께 이 번역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DB에서 먼저 <동문선>의 번역을 확인했고, 다음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번역도 보았다. 「삼도부」가 실려 있는 <동문선> 제2권의 번역은 1968년 양주동(梁柱東, 1903~1977) 박

*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

삼도부(三都賦)

최자(崔滋)

서도(西都)의 변생(辨生)¹과 북경(北京)의 담수(談叟)²가 강도(江都)³에 놀러 와서, 한 정의대부(正義大夫)⁴를 만났다. 대부가 말했다.

“서도(평양)와 북도(개성)의 이름은 일찍이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다행히 두 사람을 만났으니, 두 도시의 이야기를 해주어 내 지식을 넓혀주오.”

변생이 그러겠다고 하며 말했다.

“평양을 처음 세울 때, ‘동명(東明)’⁵이란 임금의 하늘에서 내려오서, 이곳을 둘러보고 여기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터도 닦지 않고 집도 짓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성이 우뚝 솟았고, 오룡거(五龍車)⁶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온갖 신이 인도하고, 수많은 신선이 뒤를 따랐으며, 웅연(熊淵)⁷에서 여자를 만나 내왕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강 한가운데 돌이 있어, 그 이름을 조천대(朝天臺)⁸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평평한 바위이고, 저렇게 보면 가파른 산입니다.

동명왕이 때때로 올라가면, 신령이 임금을 모시고 배회하니, 신령이 머무르는 곳은 평양의 그 사당입니다.

바람의 신을 부르고 비의 신을 지휘하며, 노하면 맑은 날에도 우박과 번개, 나무와 돌이 마구 날립니다.

또 목멩(木覓)⁹이 있어서 농사일은 여기서 관장하니, 갈지 않아도 곡식이 열리고, 풍년이 들어 노적가리가 산더미 같습니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모두 감싸 주며, 큰 복을 줍니다.

대체로 이와 같으니, 어떻습니까?”

대부가 말했다.

“괴상하고 허황한 일이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변생이 말했다.

“장려한 구경거리인 용언궐(龍堰闕)¹⁰과 구제궁(九梯宮)¹¹은 시원하게 넓고도 탁 트이고 밝고도 드높아서, 우주를 여닫는 듯 동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니, 하늘도 그 나는 듯한 자세를 빼앗지 못하며 귀신도 그 공을 다투지 못할 것입니다.

평양에서 볼만한 곳은, 푸른 바다에 걸쳐 있는 다경루(多景樓), 하늘을 받치고 있는 청원루(淸遠樓), 넓은 강을 바라보는 부벽루(浮碧樓), 산에 걸려 있는 영명사(永明寺)입니다.¹²

서는 대동강 을밀대 밑에 있는 바위로, 조수(潮水)에 따라 드러나는 바위라고 했다. 동명왕이 말을 타고 이 바위에서 하늘에 조회했다는 전설이 있다.

9 목멩(木覓): 평양의 목멩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멩산은 평양 동쪽에 있는 산인데, 이 산에 농업을 맡은 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용언궐(龍堰闕): 용언궁(龍堰宮)이라고도 한다. 고려 예종 때 평양의 용언에 지은 궁궐.

11 구제궁(九梯宮): 평양에 있던 궁궐. 고려 선종이 구제궁에 갔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온다.

12 청원루(淸遠樓)와 다경루(多景樓)는 평양 서쪽에 있었고, 부벽루(浮碧

1 서도(西都)의 변생(辨生): 서도는 평양이고, 변생은 말재주가 좋은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

2 북경(北京)의 담수(談叟): 북경은 개성이고, 담수는 얘기를 좋아하는 노인이라는 의미.

3 강도(江都): 강화도(江華島).

4 정의대부(正義大夫): 고려 시대 정4품 문관의 품계.

5 동명(東明): 동명왕(東明王).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

6 오룡거(五龍車):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 이규보(李奎報)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에, 해모수(解慕漱)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룡거를 타고 왔다고 했다.

7 웅연(熊淵): 『동문선』에는 ‘웅연(熊然)’이라 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웅연(熊淵)’이라고 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에는, 해모수가 웅심산(熊心山)에 머물렀고, 하백의 세 딸이 압록강에서 나와 ‘웅심사(熊心溪)’에서 놀았다고 했다. ‘溪’는 ‘물가’나 ‘강가’라는 의미이므로, 웅심산 근처의 물가라는 의미인 웅연(熊淵)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 조천대(朝天臺): 조천석(朝天石). 부벽루 아래 있는 큰 바위. 『고려사』에

여러 물줄기 모여들어 그 이름 대동강이니, 맑은 물이 넘쳐흘러 빛나는 모양은, 호경(鎬京)을 끌어안고 풍수(淸水)가 되려는 듯하며,¹³ 흰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정결하고 청동 거울처럼 맑습니다.

양 언덕의 수양버들은 온종일 춤을 추고, 평평한 모래사장과 넓은 들판에 내려앉는 기러기 울음소리 크며, 푸른 산은 성곽을 둘러싸고 사면이 높이 솟았습니다.

내려다보니 가는 빛속에 도롱이 쓴 사람은 어부들이고, 저녁 햇살 속에 목동의 피리 소리 멀리서 들리는데, 그림으로 비슷하게 그려낼 수 없고, 시를 읊어서도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기여차, 비단 닷줄을 풀고 놀잇배를 띄워 강 한가운데서 머리를 돌려보니, 황홀한 것이 거울 병풍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읍의 이렇게 빼어난 풍경은 진실로 온 세상에 서 하나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부가 말했다.

“기이한 볼거리와 뛰어난 경치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네.”

변생이 말했다.

“고기 잡으러 물에 가서 큰 그물을 한번 들어 올리면 여러 가지 생선이 많이 잡히니, 미꾸라지, 고래, 방어, 가물치, 날치, 모래무지, 메기, 잉어, 오징어, 뱀장어, 전어, 상어 등은 정말로 흔한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어 강이 모두 얼어붙으면 아름다운 물고기가 얼음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쇠 작살로 물고기를 찔러 백발백중 잡아냅니다.

소반에 올려놓고 하룻밤이 지나면 옥처럼 깨끗하게 어

樓)는 금수산에 있었다. 영명사(永明寺)는 금수산의 부벽루 서쪽에 있던 절이다.

13 호경(鎬京)은 주(周)나라의 수도이고, 풍수(淸水)는 강 이름이다. 평양을 호경이라고도 했다.

는데, 포정(庖丁) 선부(膳夫)¹⁴의 칼 소리에 가늘게 썬 생선 회가 날리듯 떨어지니. 색깔도 아름답고 맛도 좋아서, 한번 씹으면 이가 시리고, 목구멍은 서늘합니다.”

(이 사이의 구절이 빠졌다)¹⁵

“천 년 동안 그대로이다.

옛날에 최치원(崔致遠)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성인의 기운이 산 남쪽에 무르익으니, 곡령(鵠嶺)에는 소나무가 푸르고 계림(鷄林)의 나무는 낙엽이 진다.’라고 하여, 제왕의 기운이 일어나기 전에 흥망을 미리 예언했습니다.¹⁶

철원(鐵原)에서 보배 거울이 하늘에서 스스로 떨어져, 먼저 신라를 치고, 후에 압록강을 얻으리라는 그 말이 분명했습니다.¹⁷

이윽고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명당을 여니, 북쪽 산은 소가 누운 모양이고, 남쪽 고개는 용이 나르는 형상입니다.

오른쪽은 품고 왼쪽은 끌어안았으니, 안화(案花)가 서로 맞으며,¹⁸ 여덟 봉우리와 세 고개며, 동쪽의 고개와 서쪽의 언덕이 숨어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 솟아납니다.

동쪽의 별은 팔뚝 같고 서쪽의 별은 주먹 같은데, 정기가 오르고 신명이 내려와서 기운을 토하며 상서로움을 낳았습니다.

14 포정(庖丁) 선부(膳夫): 포정은 소를 잡는 사람이고, 선부는 요리하는 사람이다.

15 『동문선』의 원문은 ‘차간구실(此間句失)’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결(缺)’이라고 했다. 빠진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문맥으로 보아서는, 변생이 음식을 니열한 것에 대한 대부의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답수의 도참(圖讖)에 관한 말이 이어졌을 것이다.

16 최치원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곡령(鵠嶺)은 개성의 송악(松嶽)을 말하고, 계림(鷄林)은 경주(慶州)이다. 이는 신라가 망하고 장차 고려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삼국통일을 예언했다는 거울 속의 글. 원문의 ‘선계후암(先雞後鴨)’은, “먼저 닭을 잡은 뒤 오리를 잡는다.”라는 의미로, 닭은 계림(신라)을 가리키고 오리는 압록강을 뜻한다.

18 안화(案花): 미상. 풍수에서 말하는 안산(案山)과 조산(祖山)으로 보임.

영험한 다섯 개 하천의 근원은 깊고도 먼데, 수많은 골짜기 물이 모여들어 넘실넘실 넘치듯이 흘러가면서, 바퀴살이 바퀴통으로 모여들 듯이 서울을 향하여 흘러들며, 영험함을 길러내고 덕을 모으니, 온갖 것을 길러내어 모두 아름답습니다.

푸른 솔이 무성하기 삼백여 년에, 중간에 약해졌다가 다시 왕성해지니, 무더기로 난 뽕나무에 매어놓은 것처럼 안전해졌습니다.¹⁹

우리나라처럼 예로부터 예언서에 따라 나라를 세운 임금의 명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대부가 말했다.

“거룩한 조상이 임금이 되신 것은, 하늘의 뜻을 받고 백성을 따른 것이지, 풍수나 도참(圖讖) 같은 황당한 것 때문이 아니다.”

담수가 말했다.

“중원(中原)²⁰과 대녕(大寧)²¹은 철이 생산되는 곳인데, 산의 돌을 뚫지 않아도 철이나 납 같은 여러 가지 금속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산의 뿌리와 밑동을 파면 끝이 없어나옵니다.

용광로에 넣고 불을 때어 강한 불로 쇠를 녹여, 뜨거운 불로는 도드라진 무늬를 만들고, 물에 식히면서는 음각(陰刻)을 넣습니다.

노련한 대장장이가 망치를 놀려 백번 천번 두드리니, 큰 살축이 되고 작은 살축이 되며, 긴 창이 되고 물미²²가 되며, 칼이 되고 창이 되며, 화로가 되고 송곳이 되며, 호미가 되고 괭이가 되며, 솔이 되고 물통이 되니, 그릇으론 집안에 쓰기에 넉넉하고, 병기로는 외적을 막아내기 충분합

19 원문의 '계우포상(繫于苞桑)'은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뽕나무에 단단히 매어둔다는 뜻으로 앞날을 경계한다는 의미이다.

20 중원(中原): 충청도 충주(忠州).

21 대녕(大寧): 황해도 해주(海州).

22 물미: 깃대나 창대 따위를 땅에 꽃을 때 잘 서 있도록 깃대나 창대 따위의 끝에 끼우는 끝이 뾰족한 쇠.

니다.

계림(鷄林)과 영가(永嘉)에는²³ 뽕나무와 꾸지뽕나무가 우거졌으니, 봄날 욕잠(浴蠶)²⁴할 때 한 집에 누에 채반이만 개요, 여름에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으면 한 손가락에 백 가닥씩입니다.

먼저 고치에서 실마리를 뽑아내어 바야흐로 실을 다듬어 옷감을 짜니, 북²⁵은 번개처럼 빠르고 바디는 바람 같은데, 벽력같은 소리가 다 끝나면, 곱게도 짜고 성글게도 짜며, 무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두껍게도 짜고 얇게도 짍니다.

흰 비단은 연기처럼 가늘고 안개처럼 얇으며, 눈처럼 희고 서리처럼 하얀데, 파랑과 노랑으로 물들이고 주홍과 녹색으로 물들이며, 무늬를 넣기도 하고, 수를 놓기도 하여, 귀인들이 입고 일반인도 입으니, 옷감이 문에 끌리면 소리가 나고, 펼치면 빛이 납니다.

이곳은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나는 땅으로, 나라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합니다.”

대부가 말했다.

“한 자나 되는 큰 구슬도 보배가 아니라 했거늘,²⁶ 하물며 쇠와 비단이라.”

담수가 말했다.

“어깨를 나란히 한 사인(詞人)과 묵객(墨客)이 많고도 많은데, 수놓은 것 같은 말과 비단 같은 마음²⁷으로 붉은 정(情)과 푸른 뜻을 펼치니, 얼음과 눈을 씹듯 상쾌하고, 금과 옥을 새긴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23 영가(永嘉): 경상도 안동(安東).

24 욕잠(浴蠶): 누에의 알을 물로 씻고 고르는 일.

25 북: 옷감을 짜는 기구의 하나.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풀어주는 기구.

26 원문의 척벽비보(尺璧非寶)는 <천자문>의 한 구절이다.

27 원문의 수구금심(繡口錦心)은 금심수구(錦心繡口)와 같은 말로, 비단 같은 마음과 수놓은 것 같은 말이라는 의미. 글재주가 빼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붓을 한번 달리면, 천등과 번개 같은 그 빠름은 비할 데가 없으며, 시의 다양한 맵시는 맑은 강이나 깎아지른 절벽도 그 깊음과 높이를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익숙하고 오래된 옛날 표현은 그대로 쓰지 않고, 새로운 말을 깨우쳐서²⁸ 이제 새로 만들어냅니다.

무부(武夫)와 맹사(猛士)는, 뒤가 짧은 옷에 모자 끈은 늘어뜨리고,²⁹ 뱀 무늬 칼을 차고 용무늬 칼을 들고, 달리고 구르며 치고 부딪치며, 포효하듯 소리치고, 곰처럼 붙잡고 범처럼 움켜쥐며, 매처럼 낚아채고 원숭이처럼 뛰어넘으며, 눈을 부릅뜨고 거칠게 말을 하며, 가볍게 팔을 휘두릅니다.

말을 타고 한번 활을 쏘면 연속해서 세 발을 명중시키고, 격구(擊毬)의 채를 한 번 휘두르면 나르는 공이 하늘에서 춤추니, 이들을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가 말했다.

“아니다. 글 짓는 작은 재주와 어지럽게 힘을 쓰는 일은 군자가 취하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격구의 공을 치는 재주를 말할 것 있는가?”

담수가 말했다.

“관직을 설치하여 이를 나누어 맡기니 중앙 관직이 천(千)이고 지방 관직이 만(萬)인데, 탁한 것은 흘려보내고 맑은 것은 들어 올려 공평하고 깨끗하게 선발합니다.

해마다 춘관(春官)³⁰에 명령하여 어질고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등용하니, 붉고 푸른 관복을 입은 관리가 조정에 가득하여 관복을 갖추어 입고 있습니다.³¹

외직으로 나가 염찰사(廉察使)나 각 고을의 원님이 되

28 원문의 글자는 ‘령(冷)’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9 원문의 ‘衣短後纓纒胡’는 『장자(莊子)』 「설검(說劍)」의 ‘曼胡之纓短後之衣’의 변용이고, 아래의 ‘瞶目語難’도 「설검」의 ‘瞶目而語難’에서 온 말이다.
 30 춘관(春官): 예조(禮曹)를 달리 이르는 말. 외교, 예악(禮樂), 과거(科擧) 등을 관장했다.
 31 원문의 ‘紳垂旒擗’은 관복을 갖추는 때 띠를 늘어뜨리고 허리띠에 흘(旒)을 꽂는 것을 말하는데, 관리들이 복장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어, 얼음이나 옥(玉)처럼 깨끗하게 자신의 맑은 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샘물이나 등잔불 같은 것에서도 이익을 취하지 않는 데, 하물며 뇌물로 보내는 물건을 받겠습니까.

허리띠를 끊어서 등불의 심지를 삼고,³² 샘물을 마시는 데도 돈을 주니,³³ 문에 참새 그물을 칠 정도로 조용하고,³⁴ 밥상에는 생선 하나 없이 초라하여, 사람들이 그 이름에 탄복하고 스스로 흠 하나 없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위엄을 보이고 싶다면 가혹해야 하므로, 자질구레한 일도 자세히 조사하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까지 자세히 드러내어, 털을 불고 때를 긁어내듯 허물을 찾으니³⁵ 잘못을 가릴 길이 없습니다.

이에 포승을 휘두르고 법률을 들먹이며, 곤장을 치면 백 대로 그치지 않고, 목을 조를 때는 굵은 밧줄이 오히려 미덥지 않았습다.

아전은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백성은 간담이 서늘하여, 소리 한마디 없이 얼어붙어 벌벌 떨기만 하는데, 갑자기 여러 문제가 밝혀지면서, 한 번 꾸짖으니 교활한 무리가 모두 겁을 냅니다.

해마다 세금을 늘려도 무거운 것이 아니고, 달마다 선물을 바쳐도 아침이 아니며, 억지로 급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한 세금 건듯이 하여, 밧길로 육지로 번개처럼 빠르게 운반해 와서 나라의 창고를 채워놓으니, 공무를 열심히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공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32 단대위등(斷帶爲燈): 당나라의 황보무일(皇甫無逸)이 백성의 집에 목게 되었을 때, 등잔의 심지가 다 타들어 가자, 자신의 허리띠를 끊어 심지를 만들었다는 고사.
 33 양(梁)나라 하원(何遠)이 무창태수(武昌太守)가 되었을 때, 여름에 마실 물이 나쁘므로 사람을 시켜 민가(民家)의 좋은 우물의 냉수(冷水)를 길러다 먹으면서 물값으로 돈을 주었는데, 주인이 받지 않자, “그러면 그 물은 길어다 먹지 않겠다.” 하며 기어이 돈을 주었다는 고사.
 34 한나라 책공(翟公)이 정위(廷尉) 벼슬을 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다가, 관직을 그만두자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대문 앞에 새잡는 그물을 칠 정도가 되었다는 고사.
 35 원문의 ‘취괄이구(吹刮而求)’는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가 말했다.

“청렴한 것처럼 꾸민 가혹함은 백성을 좀먹는 일이니, 그 해독이 심하다.”

담수가 말했다.

“공경(公卿)의 저택은 10리에 뻗쳐 있는데, 엄청나게 큰 누각은 봉황이 춤추고 교룡(蛟龍)이 일어서는 듯하고, 서늘한 마루와 따스한 방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금빛과 푸른빛이 휘황하게 비취고, 붉은색과 비취색은 가득하며, 값비싼 비단으로 기둥을 싸고 물들인 담요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진기한 나무와 기이한 풀, 이름나고 아름다운 꽃, 그리고 봄꽃과 여름의 과실은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가득하고, 향기를 퍼뜨리고 그늘을 만들면서 아름다움과 고움을 다 두고 있습니다.

뒷방의 미인들은 구름옷에 하늘하늘한 배자를 입고, 갖은 자태와 한없는 요염함을 띄고 열을 지어 둘러섰습니다.

대모(玳瑁)로 장식한 대자리와 비단 자리에, 악기 소리와 노래며 북소리가 울리는데, 넘쳐나는 향기로운 술은 천 개의 술잔에 가득합니다.

〈주역〉의 수괘(需卦)³⁶ 같고, 〈시경〉의 「기취(既醉)」³⁷ 같아서, 낙타의 등살과 곰의 발바닥 요리며,³⁸ 용의 간과 봉황의 골수가³⁹ 비단이나 구슬처럼 쌓여 있어도 질리도록 먹어 뱉어냅니다.

심지어 일반 서민과 평민이나 불가의 승려들도 반드시 화려한 집에서 살고, 음식은 모두 맛있는 것이며, 눈과 귀

를 즐겁게 하는 오락이 끝이 없고, 의복과 장식의 기이함을 자랑합니다.

노비와 천한 하인도 모두 분수에 넘치게 높은 관(冠)에 복두(幘頭)를 썼으며, 허리띠와 신발에 무늬를 새기고, 의복은 가볍고 촘촘한 감으로 된 것을 입고 다투어 사치함을 자랑합니다.

비록 웅락(雍洛)⁴⁰의 화려함이라도 감히 우리와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대부가 말했다.

“아아! 옛 수도 개성을 떠나게 된 것은 대체로 이것 때문이다.”

이에 평양과 개성에서 온 두 손님은, 수염이 곤두서고 얼굴빛이 변하며, 또한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루 내내 말하는 것을 대부께서는 모두 꺾으시니, 강도(江都)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부가 말했다.

“두 사람은 일찍이 강도의 일을 들었는가? 대강 하나의 실마리를 들어 비교하여 얘기해보겠네.

대저 큰 동해(東海)⁴¹는, 온갖 강물을 마치 거자씨 삼키듯 하고, 구름을 흩어버리고 해를 들이마시며, 물결이 들끓어 올라 솟구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화산(火山)⁴²을 금오(金鰲)⁴³가 우뚝 머리에 이고 있다.

물가 언덕과 해변의 평평한 곳에는, 나뭇가지가 뻗고 나뭇잎이 달린 것처럼, 또 바둑돌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답

36 수괘(需卦): 이 괘는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형상한 것인데, 마시고 먹고 잔치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풀이한다.

37 기취(既醉): 〈시경〉 대아(大雅)의 한 편명으로, “이미 술에 흠뻑 취하였고 이미 덕에 배가 불렀도다.(既醉以酒 既飽以德)”라는 내용이 있어서, 잔치를 의미한다.

38 타봉(駝峯) 웅장(熊掌): 타봉은 낙타의 등에 있는 봉우리이고, 웅장은 곰의 발바닥인데, 이 두 가지는 맛있는 요리의 재료이다.

39 용간(龍肝) 봉수(鳳髓): 용의 간과 봉황의 골수는 상상의 동물인 용과 봉황의 간과 골수를 요리 재료로 쓴다는 의미이다.

40 웅락(雍洛): 웅주(雍州)와 낙양(洛陽)을 말하는데, 장안(長安)이 웅주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장안과 낙양 두 곳을 가리키는 의미로 썼다.

41 동해(東海): 황해(黃海). 서해(西海). 서해는 중국의 동쪽에 있으므로, 중국의 관점에서 동해라고 말했다.

42 화산(火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화도호부에 화산은 부의 남쪽 5리에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화산은 강화도를 가리키는 의미로 썼다.

43 금오(金鰲): 바다에서 산을 떠받치고 있다는 전설 속의 자라

게 펼쳐져 있으니, 강과 바다의 장사꾼이며 어부와 소금 굽는 사람들의 집이다.

신성한 산악에서 꽃이 피고, 신령스러운 언덕에서 꽃 받침을 받드니, 그 꽃과 꽃받침을 엮어 나는 새처럼 솟아 오른 것은, 황제의 거실과 궁경과 사대부 그리고 서민의 집이다.

안으로는 마니산(摩尼山)과 혈구산(穴口山)이 겹겹이 싸고 있고, 밖으로는 동진산(童津山)과 백마산(白馬山)의 네 요새를 경계로 하고 있다.

동편의 갑화관(岬華關)은 출입을 단속하고, 북쪽의 풍포관(楓浦館)은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며, 갑화관과 풍포관은 문턱이 되고, 두 산은 지도리⁴⁴가 되니, 참으로 천지간의 깊숙한 곳이다.

이에 안에는 자줏빛 성채로 둘러싸고 밖에는 흰 성가퀴로 둘러싸고, 물은 굽이돌아 성채를 돕고 산은 높기를 다투는데, 굽어보니 물은 깊어 오싹하고 올려다보니 깎아지른 절벽이 아찔하다.

오리나 기러기도 날아들 수 없고 늑대와 범도 엿보지 못하며, 한 사람이 막으면 모든 집이 편안하게 잠을 이루니, 이는 금성탕지(金城湯池)⁴⁵로 영원한 제왕의 도읍이다.”

두 손님이 말했다.

“나라를 굳게 하는 것은 산이나 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덕(德)에 있는 것이지 험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가 말했다.

“성시(城市)가 곧 포구(浦口)이고, 문밖에 바로 배가 있으니, 풀을 베러 나가거나 나무를 해서 돌아올 때, 배에 실어 물에 떠오면 육지보다 빠르다.

땀감을 쉽게 채취해서 실어 올 수 있으니 취사에 부족

44 지도리: 대문을 여닫기 위해 대문과 문지방에 붙이는 장치.

45 금성탕지(金城湯池): 쇠로 만든 성곽과 펄펄 끓는 물로 채운 해자(壕宇)라는 뜻으로, 견고한 요새를 말한다.

함이 없고, 말먹이가 넉넉하니 일을 덜 해도 쓸 것이 충분하며, 힘은 적게 들여도 그 공은 많다.

장삿배와 공물(貢物)을 실은 배가 만 리에 돛을 이었고, 큰 배는 북쪽으로 가고 작은 배는 남쪽으로 향하니, 돛대 가 서로 뒤를 잇고 배고물이 서로 맞대어서, 바람 한 번 불면 순식간에 온 세상에서 모여든다.

산과 바다의 진미(珍味)를⁴⁶ 실어 오지 않는 것이 없으며, 옥같이 흰 쌀을 짙어 누만 석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진기한 모피를 꾸린 것이며 온 세상에서 모인 것이 가득하다.

배가 다투어 와서 닻줄을 내리자, 갑자기 거리와 골목이 사람으로 가득 넘쳐나서 사방으로 옮기기가 매우 쉬우니, 소나 말에 실는 데 드는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⁴⁷

이에 손에 들고 어깨에 메어 잠시 왔다 갔다 하면, 관가에 쌓이고 민가에 흘러넘쳐 산처럼 높고 샘솟듯이 넘쳐나며, 온갖 묵은 곡식이 썩어가니, 한(漢)나라의 풍부한 재물에 비길만하다.”

두 손님이 말했다.

“지극한 부(富)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거교(鉅橋)⁴⁸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대부가 말했다.

“불법(佛法)이 해동(海東)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서, 불상(佛像)을 만들어 귀의(歸依)하는데, 쇠를 녹이고 흙을 빚으며 돌을 쪼고 나무를 깎으며, 혹은 명주실로 수를 놓거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니, 윤이 나고 단정하며 엄숙하고 짐작은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

46 원문의 산의해착(山宜海錯)은 산진해착(山珍海錯)과 같은 의미로 보임. 산해진미(山海珍味)를 말한다.

47 『동문선』에는 새천(賽倩)이라고 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새채(賽債)로 되어 있다.

48 거교(鉅橋): 은(殷)나라 폭군 주왕(紂王)이 양곡을 저장했던 창고의 이름. 저장해놓기만 하고 백성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법보(法寶)⁴⁹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이며 선교(禪敎)⁵⁰의 서적과 조사(祖師)의 말 씀을 목판으로 인쇄하고 먹으로 쓰는데, 금으로 쓰기도 하고 피로 쓰기도 하여,⁵¹ 누른색 붉은색의 두루마리를 옥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 비단으로 싸놓았으니, 만약 풍장(風藏)⁵²이 열리면 쌓은 것이 우뚝할 것이다.

선종(禪宗)의 가람(伽藍)과 교종(敎宗)의 사찰, 공적인 절과 사적인 당(堂), 그리고 사(社), 암(庵), 재(齋), 방(房)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우뚝 솟아 몇천만인지 모르겠다.

향을 태우는 연기는 만 리에 뻗쳐 있고, 종소리와 경쇠 소리는 사방에서 서로 들리며, 긴 눈썹에 검붉은 가시를 입은 스님과 푸른 눈에 국화 빛 장삼을 입은 스님이 있고, 남북의 총림(叢林)⁵³은 대나무나 갈대처럼 줄을 지어 서 있다.

용과 코끼리가 서로 발로 차고, 황금빛 사자가 다투어 울부짖으며,⁵⁴ 마음에서 마음으로 천 개의 등불이 이어지고,⁵⁵ 입에서 입으로 대중의 믿음이 전해지며, 아침에는 임금의 장수를 비는 향을 태우고, 저녁에는 재앙을 없애는 촛불을 밝힌다.

그것으로 오히려 부족하여, 도성(都城)에 특별히 사찰을 지어 먼 곳의 방외(方外)의 도반(道伴)을 맞아들이니, 청산(靑山)과 백운(白雲)에서 몸을 빼내어 자맥홍진(紫陌紅塵)⁵⁶에 와서 수단(手段)을 보여준다.

방망이를 잡으며 불자(拂子)를 세우니⁵⁷ 바람과 우레가

49 법보(法寶): 삼보(三寶)의 하나로 불경(佛經)을 말한다.
50 선교(禪敎):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51 원문의 자혈(刺血)은 자기 피를 뽑아 불경을 쓰는 것을 말한다.
52 풍장(風藏): 미상.
53 총림(叢林): 많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54 용과 코끼리는 학덕이 높은 승려를 가리키는 말로, 이들이 싸운다는 것은 논쟁이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사자의 울부짖음은 부처님이나 고승의 설법을 말한다.
55 천등(千燈): 천 개의 등불. 불교에서 불법을 등(燈)에 비유한다.
56 자맥홍진(紫陌紅塵): 도시의 큰길에 날리는 먼지라는 의미로 도회지를 말한다.
57 퇴불(槌拂)은 염퇴수불(拈槌豎拂)을 줄인 말로, 몽둥이를 잡으며 불자(拂子)를 세운다는 의미이다. 선가(禪家)의 용어로, 몽둥이를 잡고 세워 태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총채로 털어 내어 간사한 생각을 제거한다는 의미

일어나고, 몽둥이로 치며 크게 소리치자⁵⁸ 우박이 흩어지며, 죽이고 살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니⁵⁹ 반드시 머리를 벨 것이다.⁶⁰

몇 해 전 큰 난리 때문에,⁶¹ 임금과 신하의 더욱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 종파가 한데 모여 하루걸러 불공을 드리니, 염불 소리와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가 격렬하고 절실하여 산악이 모두 흔들리고, 머리카락과 손가락을 태우는⁶² 연기에 해와 달이 가려졌다.

정성스럽게 힘쓰는 것이 이처럼 지극하니, 보응(報應)과 가호(加護)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두 손님이 말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를 받드는 것은 양(梁)나라⁶³ 같은 데가 없었는데, 어째서 그리 빨리 망했는가요?”

대부가 말했다.

“지금 임금 자신이 검소하시고 아랫사람을 후하게 대접하오.”

두 손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얼굴빛이 달라지면 서, 공손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부께서는 여러 말씀을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한 마디 말로도 태평한 시대가 아름답게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저 정치의 맑고 공평함은 모두 검소함에서 시작하는
이다.

58 방할(棒喝): 선가에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몽둥이로 때리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한다.
59 살활자재(殺活自在):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유자재이다. 선가의 용어.
60 두두필단(頭頭必斷): 머리가 반드시 잘릴 것이다. 중국 송(宋)나라 때 간행된 선(禪)의 화두집(話頭集) 『벽암록(碧巖錄)』에 들어 있는 이야기의 하나인, 암두화상(巖頭和尚)의 이야기로 보임.
61 큰 난리는 몽골의 침입을 말한다.
62 연두소지(燃頭燒指): 불교에서 수행의 하나로 머리카락이나 손가락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
63 양(梁)나라: 양무제(梁武帝)를 말하는 것이다. 양무제는 불교를 숭상하였으나 후에 반란이 일어나 굶어 죽었다.

것이니, 하늘이 어찌 돕지 않으며, 나라의 토대가 어찌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비방한 것은, 다만 스스로 나라에 누(累)를 끼쳤을 뿐입니다.”

대부가 말했다.

“두 분은 들으시오. 나는 과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소.

옛날 주(周)나라는 충후(忠厚)하여 팔백 년을 누렸고, 한문제(漢文帝)는 솜옷과 가죽신으로 지내고, 그 신하들도 덕망 있는 둔후(敦厚)한 사람이 많아서, 나라의 복록이 한이 없었다.

당태종(唐太宗)은 검소함을 숭상하여, 전각 하나를 지으려고 하다가 진(秦)나라를 거울삼아 중지했으며, 당시 방현령(房玄齡)과 위징(魏徵)⁶⁴은 잘 다스려진다고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라가 삼백 년을 이어갔다.

깊이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풍속의 교화가 옛날을 뛰어넘고,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도를 즐기며,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겨 이것으로 나라를 보전하니, 만물이 탈 없이 잘 지내고⁶⁵ 백성들이 화평하다.

감탄으로는 부족하여 그 뜻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래를 만들었다.

‘아득한 요순(堯舜)시절부터

아래로 성대한 송(宋)나라에 이르기까지

형식과 내용의 연혁(沿革)은 달랐으나

사치와 검소에 흥망(興亡)이 달리지 않음이 없었다네.

평양은 음탕함으로 넘어졌고

개성은 사치함으로 떠내려갔네.⁶⁶

눈부신 강도(江都)는

오로지 덕의 터전이고

하늘의 순리를 좇아 큰 나라를 섬기며

풍속이 순박하네.

영원토록⁶⁷

평안하면서, 위태로움을 잊지 말지어다.”

64 방현령(房玄齡) 위징(魏徵): 당태종의 신하로, 당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65 물부자려(物不疵癘): 사물이 탈 없이 잘 지낸다는 의미.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말.

66 원문의 서류(西柳)와 북송(北松)은, 서쪽의 버드나무와 북쪽의 소나무라는 의미로, 각각 평양과 개성을 말한다. 평양(서도)의 옛 이름은 유경(柳京)이고, 송도(松都)는 개성(북도)의 옛 이름이다.

이 자료는 2025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학술 연구의 진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됨.

67 원문의 ‘어만사년(於萬斯年)’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만년토록’,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이다.